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추진 ‘트레저헌터 in 진안’ 개최

무주군, 오늘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무주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군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기본소득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에게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1인당 월 15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6년 6월 10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한 군민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데이터 이관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7월분과 8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며, 신청 후 90일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무주군은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주사랑상품권 사용처와 사용 금액을 일부 제한해 운영한다.

사용처는 지역 내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되며, 사용처가 무주읍에 집중되지 않도록 6개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했다.

무주를 주민은 지급받은 기본소득 가운데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 최대 5만 원으로 제한한다.

무중·설천·적상·안성·부남면 주민은 읍 소재지 내 모든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 최대 5만 원

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무주를 주민의 사용기한은 지급 월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이며, 면 지역 주민은 지급 월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기본소득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무주군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 온 '무주형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지난 6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무주군은 오는 9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지역 내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주거·돌봄·교육·의료·일자리 등 기본사회 실현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22일간 최대 5000만원 여의주 찾는 참여형 관광이벤트 진행

진안군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2일간 마이산과 용담댐 일원에서 참여형 관광이벤트 '트레저헌터 in 진안 - 용담호의 잃어버린 여의주를 찾아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설 속 용담호와 용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이다.

행사의 대표 프로그램은 '보물 여의주 찾기'다. 참가자들은 진안군 곳곳에 숨겨진 실물 여의주(QR코드가 새겨진 코인)를 찾은 뒤 뱀 로컬브랜딩 플랫폼을 통해 당첨 여부와 경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행사에는 전설의 여의주 50개와 일반 여의주 2,950개 등 총 3,000개의 여의주가 준비된다. 전설의 여의주에는 1등 5천만 원부터 5등 30만 원까지의 경품이 제공되며, 일반 여의주를 찾은 참가자에게도 지역사랑상품권과 협찬 상품 등 약 8천 개의 다양한 경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다른 프로그램인 '여의주 켈린지'는 용담댐과 마이산 일원 7개 주요 관광명소에 설치된 QR코드를 스캔하고 지역별 미션을 수행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진안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지역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에는 뱀 호수 마을 음악회를 비롯해 버스킹 공연과 주민 음악회, 로컬마켓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를 위한 트레저헌터 패스는 7월 15일부터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로컬바이브(LocalVibe)'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판매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알리버드, 8월 1일부터 28일까지 사진판매,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일반판매 순으로 진행된다.

패스는 개인정보와 커피권, 가족권으로 구성되며, 판매 기간별 총 60만 장(기간별 20만 장) 한정 판매된다. 패스 구매자는 마이산 입장 할인과 홍삼산과 할인, 지역 상점 할인쿠폰 및 기념품 등 8천 원 상당 이상의 지역 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물찾기와 각종 미션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트레저헌터 in 진안은 진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자원을 흥미로운 스토리와 접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라며 "전북도민체육대회와 진안홍삼축제와 연계해 더 많은 관광객이 진안을 찾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 관광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도민체전 성공 개최 힘찬 출발

진안군, 도민(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진안군은 14일 진안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자원봉사자 150여 명을 비롯해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이

사장, 자원봉사 협약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행사는 안전교육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시작으로 내빈인사, 자원봉사자 대표 선서에 이어 성공 체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 기간 동안 본부운영, 경기 지원, 편의시설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선수단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방문객 응대 요령과 친절서비스, 장애인 응대 에티켓,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응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해 자원봉사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 17일 개장

무주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이 오는 17일 개장,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의 수용 인원은 1백 명으로 767.36㎡ 규모에 인공폭포와 유아용

풀장, 성인용 풀장, 그리고 탈의실과 샤워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이용 요금(1일)은 개인의 경우 성인 이 8천 원, 청소년은 7천 원이며 어린



무주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이 오는 17일 개장,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장수군, 청소년 팝업축제 ‘여름이 왔썬머’ 성료

장수군은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장수YMCA가 주최하고 장계청소년반쪽축제 기획단이 주관한 청소년 자 주도형 팝업축제 '여름이 왔썬머'가 지난 11일 장계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홍보, 프로그램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축제장에서는 밴드와 댄스, 히든싱어 등 직접 준비한 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제장에는 먹거리 부스와 체험부스, 물놀이 콘텐츠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청소년 인권 의견 나누기와 1388 청소년상담 홍보부스도 함께 마련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의



견을 나누고 상담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한 장계청소년반쪽축제 기획단은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축제 준비 전 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향교, 제9회 지방선거 당선자 취임 고유례 봉행

진안군은 14일 진안향교(전교 이환식) 대성전에서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인 전춘성 군수, 전용태 도의원, 김명갑 군의장 및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고유례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고유례는 국가나 개인이 중대한 일을 치른 뒤 또는 치르기 전에 그 내용을 사당이나 신령에 고하는 유가(儒家)의 의례로, 예로부터 새로 취임한 고을의 수령이 향교에서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왔다.

이번 고유례는 새로이 막을 올린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추진과 진안군의 발전, 그리고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례는 전통 유교 방식에 따라 현관의 단배와 현작 등으로 정숙하게 실시됐다.

전춘성 군수는 "향교의 도덕심, 충효사상 등 성현의 깊은 지혜와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민선9기 군정에 임하겠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9기 동안 전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군민 면면을 따뜻하게 살피고,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을 완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한농연 농업발전 다짐 · 가족체육대회 성료

장수군은 14일 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에서 농업경영인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장수군 한농연 농업발전다짐대회 및 가족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장수군연합회(회장 한병목)가 주관했으며 지역 농업인의 화합을 다지고 영농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의 비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우수농업인 시상 및 표창 수여, 체육경기와 노래자랑 등 다양한 화합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이 소통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